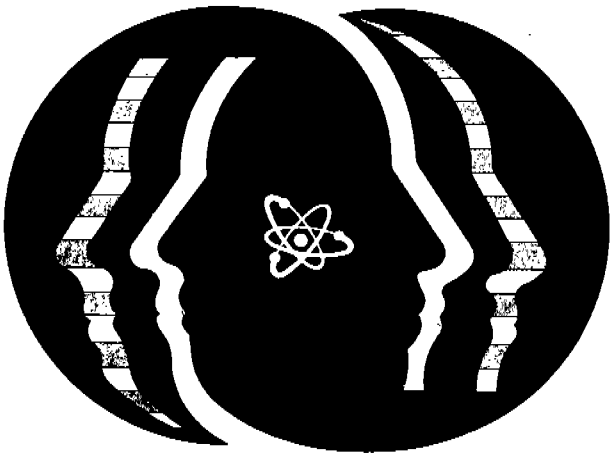


나도 原子力을 두려워 하였다

⑨

金 善 慶 譯
竹 村 健 一 著

譯者 : 大韓電氣協會 電氣使用合理化 專門委員長

Ⅳ. 故鄕이 있고 나서 내 집이

— 繁榮을 위한 原子力 —

1. 原發 排水口의 낚시꾼들

「저 사람들은 저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라고 나는 물었다.

지난해 10月10日 体育의 날, 나는 中國電力의 島根原子力發電所를 訪問하였다. 여기서 먼저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이런 光景이었다.

「아! 저거요. 오늘은 休日이라 家族同伴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排水口 근처에는 고기가 많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매우 즐거운 듯이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과연 그곳에는 많은 고기떼들이 놀고 있었다. 낚시꾼들이 아니라도 가슴이 뛰고 놀랄 정도였다.

나는 今年 들어 이 島根原發을 위시하여 關西電力의 美浜, 高浜原發의 세 곳을 見學하였다. 우연하게 全部 西쪽 海岸에 위치해 있고 있어 조용하고 아름다운 경치속에 建設되어 있다.

그런 原子力發電所에서 우선 나의 눈에 띈 것은 그 부근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었다. 그것은 나에게는 뜻밖의 光景이었다.

反對派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다면 原發 근처에는 溫排水 때문에 고기가 몰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放射能으로 汚染되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데서 낚시를 한다는 것은 生覺할 수도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눈으로 본 現實은 反對派들이 主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溫排水 때문에 고기가 많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美浜이나 高浜은 그전에는 潮의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물이 정체되어 고기들이 살지 못하였다. 그곳에 原發이 建設되어 每秒, 몇 10톤이라는 물이 取水·放水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생겨 고기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美浜에서는 방어 養殖을 하고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原發附近의 고기는 엄격한 검사를 하고 있어 放射能汚染의 염려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高浜原發에는 溫排水利用研究所가 있으며, 溫排水를 利用하여 魚貝類를 自然의 狀態보다 빠르게 成長시켜 地方 漁業發展에 이바지하는 研究를 進行中에 있다. 育成試驗의 水槽에는 전복,

참돔, 새우 등이 있었다. 說明에 따르면 自然的인 바다의 경우보다 成長이 빠르다는 것이다.

또 이 硏究所에서는 溫排水에서 效果的으로 回收하는 技術의 한가지로 히트펌프 熱回收 시스템의 基礎硏究가 進行中에 있고 回收한 熱을 溫室栽培에 利用하고 있다.

余談이긴 하나 現在 日本의 發電所에서는 百의 에너지 中 40% 밖에 利用되지 않고 나머지 60%는 溫排水로서 廢熱이 되어 버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廢熱을 回收하기 위한 코스트가 높아 버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 事情이 점점 긴박해짐에 따라 에너지 節減이라는 의미에서 多少 코스트가 높아지더라도 熱回收가 필요해진 것이다. 앞으로의 主要課題는 코스트를 어떻게 낮추느냐에 있다. 그런 뜻에서 이 高浜의 연구는 주목할만하다 하겠다.

高浜原發에서는 1號爐가 定期檢査 때문에 運轉을 休止하고 있었다. 그래서 管理統制區域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꽉 짜여진 스케줄에 쫓겨 바쁜 걸음으로 한바퀴 돌았다. 나이 50대인 나는 숨이 찼다. 무의식중에 深呼吸을 하려다가 잠깐, 여기서 심호흡을 하면 放射能을 들여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生覺이 언뜻 머리에 스쳤다.

實際로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 염려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여 多少 不安하였다. 不安해 하는 나를 보고 案內者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두려운 곳이라면 우리들도 이 안에서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정말 그렇다. 누구에게나 목숨은 아까운 것이다. 現實的으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아무런 障害도 없이 잘 있다는 것이 安全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정말 두렵다면 家族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2. 보지 않고 듣지 않는 反對論

내가 이 高浜原發을 訪問하였을 때 우연히 原發에 관한 두가지 新聞記事가 눈에 띄었다.

하나는 아톰少年·少女交換會라는 것으로 大阪府의 國民學生이 福井縣에 있는 原子力發電所로 見學을 갔다. 招待된 學校側에서는 「敎育的인 효과가 컸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敎職員組合은 「充分한 判斷力이 없는 어린이에게 安全性이 확인되지 않은 原發을 P.R하려는 것이다. 學校敎育에 대한 惡質的이고 組織的인 挑戰이다」라고 强烈하게 反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나의 생각은 國民學校學生이거나 누구거나 정말 두려운 것인가 아닌가를 실제로 보고 확인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生覺한다. "百聞이 不如一見"이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朝日新聞의 社說이다. 新潟縣의 原子力發電所 增設을 둘러싸고 開催된 公開聽聞會에 대한 記事이다.

「우리나라의 原子力開發은 지금 重要한 岐路에 서 있다.… 原子力開發을 둘러싸고 國民間에 진한 論議가 더욱 더 필요한 時期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貴重한 論議의 場인 公聽會를 反對派는 왜 보이코트하는가. 왜 당당하게 參加하여 反對意見을 陳述하거나 의문점을 따지거나 하지를 않는가. 警察과의 충돌로는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고도 참으로 呼訴하여야 할 住民들의 절실한 목소리나 素朴한 疑問마저 지워버릴 위험성이 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新聞이 이러한 社說을 게재한 것은 높이 評價할만 하다.

때를 같이 하여 每日新聞의 「매스컴 診斷」이라는 난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다.

「原發과 空港과 新幹線은 현재에 있어서의 저너리즘의 터브라고 하고 있으나 反對다, 大會다, 데모다 하는 現象은 솔직히 말해서 지긋지긋하다.… 참으로 反對立場에 선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 되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立場에 서 있는가. 提供된 조건이나 代替地는 어떤 것인가. 이 反對者들은 과연 新幹線이나 飛行機를 利用하지

않는가. 한번 한사람 한사람에게 물어 보라. 더욱 자세한 것을 조사해 보라」라는 내용이었다.

참으로 同感이다. 原發, 新幹線 등과 같은 큰 프로젝트 건설에는 반드시 反對運動이 따른다. 더구나 住民이 한다면 또 몰라도 참을 수 없는 것은 外人部隊가 많이 참가하여 떠들어대며 無責任한 反對運動을 展開하는 것이다.

거기다 더해서 묻고 싶은 것은 매스컴 關係者의 取材態度이다. 關係住民과 外部人士와의 區別을 확실히 하고 참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地域住民은 몇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하면 同意하여 주는가 등을 자세하게 리포트하는 것이 저너리즘의 任務가 아닌가. 여기에 좋은 例가 있다.

1979年 4月에 일어난 美國 드리마일 아일랜드의 原發事故는 온 世界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事故後 美國에서는 政府를 위시하여 여러 機關에서 추적조사를 하였다. 그 후 뉴욕타임즈가 社說로 그 조사결과의 一部를 報告하였다.

原發周辺의 農夫들은 「그 事故 때문에 소가 걷지 못하고 있다. 山羊이 새끼를 못낳게 되었다. 부엉이와 카나리아가 모두 죽었다」라고 여러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調査結果 그것은 모두 거짓인 것이 判明되었다. 소가 걷지 못한 것은 農夫가 충분한 영양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후에 榮養과 비타민을 먹인 결과 소는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山羊이 새끼를 못낳게 된 것은 精子를 갖지 않은 山羊과 交尾시킨 때문이고, 다른 山羊과 交尾시킨 결과 새끼를 낳았다. 죽은 새들에게서도 放射能은 檢出되지 않고 死因은 연기에 질식된 것이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다시 그 社說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현명한 市民이란 그러한 히스테리칼한 소란이 진정될 때까지 잠시 참는다. 그리고 진실이 판명되는 것을 기다린다. 그리고 나서 判斷한다」

그러나 日本 매스컴은 어떠했는가. 그 事故가 발생하자, 이래도냐 이래도냐 하며 계속 공포감을 선동하였다. 그러나 最近에는 事故같은 것은 모두 잊어버린 듯 모르는 체하고 있다. 조사의 결과보고 등도 전혀 하지 않는다.

勿論 日本의 매스컴과 같이 最初의 것만 쓰고 뒤의 것은 쓰지 않아도 거짓말은 아니다. 그러나 한쪽 팔이 떨어진 것이다. 즉 日本의 신문만 읽고 있으면 매우 片見的인 情報만 접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平素 外國의 잡지나 신문을 읽는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저 드리마일의 事故 때문에 地域住民이 공포에 떤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調査結果 두렵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兩側의 事實을 쓴다는 것이 저널리스트의 任務가 아닌가. 現實面에만 집착하지 말고 숨겨진 眞實도 追究하는 것이 저너리즘의 責務가 아닌가. 그 責任의 重大함을 더욱 더 認識하여야 하겠다.

3. 日本은 왜 이만큼 풍요로워졌는가

나는 日本 저널리즘의 자세에 대하여 平素 여러가지 의문을 갖고 비판하고 있지만, 日本의 經濟에 대하여는 이 以上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日本經濟는 戰後 눈부시게 成長하여 第1次石油波動 때도 第2次石油危機도 거뜬히 넘긴 것은 日本뿐이라 할만큼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있다.

日本이 어느 정도 풍요로워졌나를 數字로 표시하여 보자.

第2次世界大戰이 끝난 1945年의 時點에서 美國의 國民總生產(GNP)은 2千億弗, 日本은 20億弗이었다. 즉, 日本의 國力은 美國의 百分의 一이었다. 現在 美國의 GNP는 2兆弗, 日本이 1兆弗이니까 日本은 美國 國力의 半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사이 日本은 다른 先進國을 차례로 앞서 나갔다. 1966年에 伊太利를 추월하고 '67年에는 英國을, '68年에는 佛蘭西를, 69年에는 西獨을 제치고 '70年에서 '79年까지 自由世界 第2位의 經濟大國이 된 것이다.

소련의 GNP는 八千億弗이라고 한다. 西獨이 6千5百億弗, 프랑스가 日本의 半인 5千億弗, 英國이 日本의 4分의 1인 2천5百億弗이다.

그러면 GNP를 人口로 나눈 一人當 所得은 어떠한가.

日本은 GNP 1兆弗로 人口 1億이니까 1人當 所得은 1萬弗이 된다. 美國은 GNP 2兆弗, 人口 2億이니까 一人當 1萬弗이 되고 西獨은 GNP 6千5百億弗, 人口 6千萬, 1人當 約1萬弗이다.

즉 日本, 美國, 西獨 3個國은 1人當의 所得水準이 거의 같아 世界의 王者라고 할 수 있다.

日本人 1人當의 소득은 戰爭이 끝난 1945年에는 겨우 35弗이었다. 그것이 '60年에는 350弗이 되었다. 그때 유럽에서는 이미 1,500弗이었었다.

그리하여 1960年 當時의 池田首相은 "所得倍增計劃"이라는 것을 내 놓았다. 그 計劃이라는 것은 당시 350弗이던 1인당 소득을 10年後의 '70年에는 倍인 700弗, 다시 10年後인 80年에는 그 倍인 千4百弗이라는 것이었다. 즉 '80年의 日本 1인당 所得을 60年當時의 유럽人의 所得水準이 되도록 하는 計劃이었다.

그런데, '80年 現在는 어떠한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려 1萬弗이 된 것이다. 이 數字를 보면 日本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日本國民은 그런 것을 충분히 自覺하고 있는가? 나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自覺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자! 日本은 왜 이렇게 풍요로워졌는가.

옛날과 같이 手作業으로 道具를 만들고 쌀을 만들고 고기를 잡고 있어서는 오늘날과 같이 풍요롭게는 될 수 없다.

가령 지금 300평의 땅을 사서 손작업으로 쌀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坪當 10萬엔의 土地를 300평 사면 3千萬엔이 된다. 한편, 손작업으로 쌀농사를 지으면 1年에 300평당 30萬엔의 收入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現在의 生活水準으로는 1年間에 30萬엔 收入으로는 아무리 하여도 生計가 안된다. 三千萬엔의 투자를 하면서 每年 赤字가 늘어나는 計算이 된다. 즉 옛날과 같이 農業이나 漁業만을 가지고는 日本은 절대로 지금과 같이 풍요롭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풍요롭게 된 根源은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工業이다. 工業은 어째서 그렇게 풍요롭게 만드는가. 理由는 간단하다,

例를 들면 호주에서 鐵鑛石의 山을 파낸다고 하자. 1톤의 돌은 7千엔이 된다. 이 돌을 原資材로 하여 日本에서 鐵鋼을 만들면 1톤當 7萬엔으로 팔린다. 6萬3千엔을 벌게 된다. 1톤 7千엔의 原資材로 自動車를 만들어 팔면 70萬엔에 팔려 69萬3千엔을 벌게 된다. 다시 1톤에 겨우 7千엔의 원자재로 半導体를 만들면 무려 24億엔이 된다고 한다. 23億999萬3千엔이라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옛날, 眞空管이라는 것이 있어 그때 라디오는 그 眞空管의 數에 따라 5個이면 5球 수퍼라 하며 數가 많을수록 高級이었다. 그러나 진공관 자체가 크기 때문에 라디오도 당연히 고급일수록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에 따라 진공관 대신 5㎜ 四方 정도의 작은 것이 생겼다.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 때문에 트란지스터 라디오가 그렇게 작아진 것이다.

集積回路(IC)는 數 ㎜ 四方의 크기 안에 최대 1千個에 가까운 트랜지스터가 담겨져 있다. 또한 LSI (大規模集積回路)가 되면 數㎜四方의 크기로 트랜지스터 千~1萬個의 能力을 갖는다.

여기다 超LSI(超大規模集積回路)가 되면 數㎜ 角中에 10萬單位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 百萬個가 들어갈 수도 있다 한다. 百萬個級의 超LSI가 開發되면 現在의 大型 컴퓨터가 보스톤백에 들어갈 것이다. 옛날 人間의 두뇌와 같은 것을 컴퓨터에 맡기려면 큰 빌딩 정도의 크기가 필요하였으나 지금은 人間의 두뇌와 같은 크기로 充分하다고 한다.

다시 또 로봇이 등장한다. 現在 世界中에서 日

本만큼 로봇이 活躍하는 나라도 없다.

로봇 頭腦의 근원이 되는 LSI의 生産은 現在 美國側이 日本보다 앞서 있다. 그러나 超LSI에서는 日本側이 美國을 앞서 있다고 한다. 앞으로 더욱 더 격차를 넓혀갈 것이다. 그리하면 日本은 더욱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요컨대 이것이 工業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각기의 企業이 얻은 利益에서 俸給을 타고 세금을 낸다. 그 稅金으로 公共事業을 하여 나라를 윤택하게 만든다.

4. 사는 것도 죽는 것도 外國에 달려 있다

그 工業의 原動力은 두말할 것 없이 에너지이다. 사람의 에너지 源은 食物이지만 工場은 石油나 石炭 등이다. 그 에너지가 없으면 모처럼 세운 工場도 아무 쓸모가 없고 能力發揮도 못한다. 옛날의 生活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즉 에너지라는 것은 사람의 食物과 같이 重要한 것이다. 그리고 그 重要性은 日本이 工業으로 돈을 벌면 벌수록 커지게 마련이다.

물론, 에너지의 重要性은 옛날에도 변함이 없었다. 第2次世界大戰이 일어난 1941年 당시 日本의 石油消費量은 3百萬톤이었다. 그 石油는 주로 美國으로부터 사왔다. 그러나 美國은 日本에의 石油輸出을 중단하였다. 1941年 8月 1日이었다. 그대로 있으면 日本人은 죽음을 免할 수가 없다. 드디어 日本은 戰爭이라는 不幸한 길을 선택하였다.

40年前에도 이만큼 石油는 重要한 것이었다. 現在 日本의 石油消費量은 3億톤으로 40年前의 百倍이므로 단순히 생각하면 貴重한 것도 百倍라는 뜻이 된다.

余談이지만 20世紀初의 세계전체의 에너지 消費量은 1日當 2千萬배럴이었다. 1978年에는 1日當 1億4천만배럴을 消費하여 7倍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日本의 에너지 消費量은 35萬배럴에서 710萬배럴인 20倍나 되었다.

'78年에는 世界全体의 에너지 消費에 대한 日本의 比率은 5%였다. 1940年에는 3.5%, 終戰時의 '45年에는 1.5%, '45年에서 60年까지는 2%대, 60年代는 3%대, 그리고 70年代에서 78年까지 계속 5%로 되어 있다.

現在 世界全体의 에너지 消費量은 石油로 換算하여 年間 約 56億kl로 推定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日本에서는 年間 約 4億kl이므로 세계전체의 14分의 1을 消費하고 있는 셈이다. 世界 全体人口가 40億, 日本人口는 1億이므로 세계전체의 40分의 1의 人間이 세계전체 에너지의 14分의 1을 쓰고 있는 셈이다. 얼마나 日本의 에너지 消費量이 많은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은 최대의 에너지 消費國이라 하고 있다. 확실히 全 에너지 消費量은 日本의 5倍이고 1人當으로는 日本의 3倍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單位面積當의 에너지 消費量에 있어서는 年間 1人當 美國은 260톤, 日本은 2千5百톤이 되어 世界一의 에너지 消費國이라는 美國의 10倍 가까이 사용하고 있다. 즉, 日本의 경우 에너지 使用密度가 높다는 결론이다.

이와 같이 에너지를 大量으로 소비하고 있는 現在의 日本을 위시한 工業先進國은 食物과 같이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認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없어서는 안될 에너지의 自給率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現在 日本의 에너지 自給率은 겨우 14% 정도이다. 이렇게 不安한 나라는 先進國中에 日本뿐이다. 資源이 없다는 프랑스도 24%이고 西獨이 50%, 英國은 100%, 소련은 120%이다.

日本도 옛날부터 이렇게 낮았던 것은 아니다. 戰爭이 끝난 1945年에는 90%나 되었다. 工業이 별로 發達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後 工業이 急速度로 발달하여 國民生活이 윤택하여지고 에너지의 需要가 供給에 뒤따르지 못하고 점점 輸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래도 高度成長하던 60年 當時의 自給率은 50%였다. 그러나 高度成

長期에 石油가 1배럴 2弗이라는 헐값이어서 값싼 石油를 언제나 손쉽게 살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産業도, 交通도, 生活도 역시 모든 것을 石油로 轉換한 것이다. 그 결과 경제성장과는 반대로 에너지 自給率이 겨우 14%라는 最惡의 事態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石油가 단지 2弗일때 石炭은 7弗이나 되어 石油價格의 3倍半이었다. 西獨에서는 有事時에 對備하여 비싼 自國의 石炭을 계속 파냈다. 그 結果가 現在 自給率 50%라는 成績이다.

에너지가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日本은 그 에너지의 9割이나 外國에 의존하고 있다. 즉 日本人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外國人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態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關係者는 國民에게 자세히 알려야 하고 危機意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國民은 어떻게 되겠지 하고 태평인 것이다. 과연 정말 어떻게든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自給率이 1割이라는 것도 問題이지만, 全 에너지의 4분의 3이나 石油에 의존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그 石油의 80%, 즉 全 에너지의 60%는 中東의 灣岸諸國에서 좁은 홀므스海峽을 거쳐서 오고 있다. 오늘날의 中東事態를 감안할 때 日本은 至大한 영향아래 놓여 있다고 보아야 겠다.

다른 先進國은 日本보다 自給率도 높고 EC諸國 同志는 北海油田이 있어 새로 도움을 받고 있다. 有事時에 同志도 아닌 日本을 도와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有事時에 對備하여 여러가지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하겠다.

5. 에너지 確保에 무엇을 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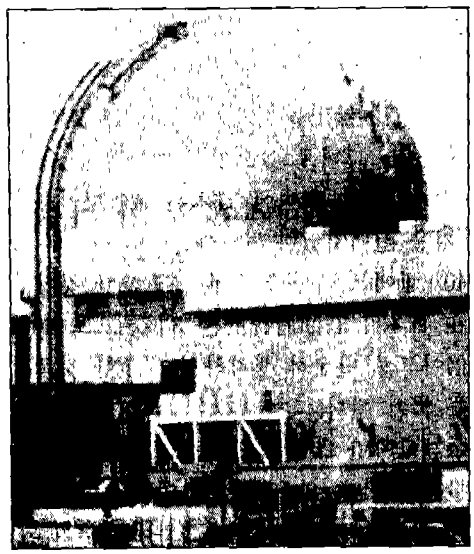
우선 自己나라에서 石油를 전혀 생산하고 있지 않다. 英國은 戰爭이 끝난 1945年부터 現在까지 日本의 12分의 1밖에 成長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年 앞서부터 北海油田을 파기 시작하여 그 結果 '78年에는 自給率이 50%가 되고 '79年에는 70%, '80年에는 드디어 100%가 되었다.

日本에서는 '80年이 되어서야 겨우 韓日 大陸棚에서 한 두곳 파낸 것뿐으로 石油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中東諸國에서 石油의 生産이 줄어들었을 때 日本에 우선적으로 팔아주도록 하는 努力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日本 다음으로 資源이 없다는 프랑스에서는 大統領이 최근에는 年 6回程度 中東地域을 訪問하고 있다. 그에 比하여 日本의 總理大臣은 明治以來 百年 사이에 '78年에 처음으로 福田前首相이 中東에 갔을 뿐이다. 中東사람들로서 보면 百年間에 단지 한번밖에 訪問하지 않는 나라와 每年 6回나 訪問하는 나라중 어느 편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또,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이러하다. 이 나라는 칠십 前부터 아랍의 王들이나 貴族들이 病이 났을 때 빈의 병원에 초청하여 적극적으로 治療를 하여 주었다. 病을 고치게 된 사람들은 모두



感謝하여 여차할 때는 이 나라에 石油를 돌려 주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이 나라는 病을 고쳐 준다는 恩惠를 베풀고 OPEC (石油輸出國機構)의 本部設置를 熱誠的으로 運動하여 드디어 그 所望을 이루었다. OPEC의 本部를 두게 된 것이 어떤 뜻을 지니는가.

OPEC만이 아니고 全世界의 國家 指導者들이 이 나라를 방문하게 된다. 당연히 이 나라에 대하여 親密感이 생겨날 것이고 사랑하는 愛人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도와 주고자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는 各己 努力을 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은 그러한 努力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例를 들어 中東의 石油가 비싸더라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때는 아직 問題가 아니다. 産油國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고는 팔지 않겠다면 그때는 日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돈으로 物件을 살 수 있을 때는 物件이 많을 때 뿐이다. 戰時中을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物資가 아주 不足할 때는 物物交換 以外에는 入手가 안되게 된다. 그것도 相對가 필요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産油國에서 必要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食糧이다. 中東은 사막지대로 食糧生産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日本自身 70%의 食糧輸入國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

두번째는 武器다. 中東은 局地戰爭의 多發地帶이기 때문에 武器는 必要不可缺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日本은 平和國家이기 때문에 武器의 輸出이 禁止되고 있다.

또 한가지는 金이다. 金은 價値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物物交換의 對象이 된다. 그러나 이것도 日本에는 없다. 즉, 産油國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日本에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中東에 石油가 不足할 때는 日本에 石油가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對策으로는 에너지使用合理化라든가 代替 에너지를 開發하든가 하여 石油依存度를 可能한 限 적게 할 수밖에 없다.

日本은 에너지 使用合理化로 큰 成果를 올리고 있다. 그 結果 「에너지 彈性値」에 異變이 일어난 것이다. 「에너지 彈性値」란 經濟成長率에 대한 에너지의 伸長率을 말한다.

그 異變이라는 것은 1973年의 石油波動 以前에는 經濟成長率과 에너지의 伸長率이 같은 數字를 表示하고 있었다.

그런데 '73年이후 彈性値가 점점 내려갔다.

더구나 1968年부터 '73年까지 5年間 日本의 經濟成長은 約9%이고 에너지 成長은 約11%이기 때문에 彈性値가 1.2였다. '73年부터 '78年의 5年間을 보면 經濟成長率이 4.3%, 에너지 伸長率은 1.4%로 彈性値가 0.3이 되고 있다. 또 '73年부터 '78年까지 5年間에 日本의 GNP는 實質的으로 22% 增加하였으나 반대로 石油消費는 3% 減少하고 있다.

'76年부터 '78年까지 3年間에는 經濟成長率 年平均 5.55%, 에너지 伸長率은 3.07%, 彈性値 0.55이다. '78年의 에너지 彈性値는 日本이 0.6, 西獨 1.2, 美國 1.3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日本의 産業分野에서의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한 國際的評價가 높다는 것도 수긍이 갈 것이다. 그 中에서도 鐵鋼業界에서는 四年間에 10%나 에너지 節減을 達成하여 世界를 놀라게 하였다. 또 시멘트業界가 18%, 石油化學도 10%의 에너지 節減을 하게 되었다 한다.

日本經濟가 第1次石油波動을 어느 나라보다 잘 넘겼다는 것은 우선 이와 같이 石油의 高價格에 對應한 産業界의 에너지 使用合理化에 대한 投資와 그 努力의 成果라고 보아야 하겠다. 勿論 産業構造의 전환이라든가 에너지 産業의 不振이나 기타 여러가지 理由가 있겠지만…

如何間에 前에는 에너지의 GNP 彈性値가 높은 것이 成長의 심볼이 되어 무엇보다도 자랑이었다. 그러나 現在는 전혀 反對로 彈性値가 낮은 것이 先進國의 심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號에 계속)